

대구주보

성 십자가 현양 축일
2014. 9. 14. (가해) 제1908호

전례와 선교의 활성화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시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_053)250-3048~9_http://www.daegujobo.or.kr



이탈리아 베르나
사진_홍창익 비오 신부

† 오늘의 전례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요한 3,13-17 참조)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하는 사람들인지를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는 표지는 십자가입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성호를 긋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알아봅니다. 평생 그은 성호의 회수를 생각하면, 우리 가슴에 십자가가 깊이 새겨져 있다고 생각해도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 예수님처럼 친구를 위해 대신 속죄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정체입니다.

제1독서 민수 21,4-9 **제2독서** 필리 2,6-11 **복음** 요한 3,13-17

입당송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리라. 주님은 우리 구원이요 생명이며 부활이시니,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구원과 자유를 얻었네.

화답송 하느님의 업적을 잊지 마라.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이리라.



이상택 리노 신부 | 만촌본당 주임

주님의 십자가

이십여 년 전의 일이다. 유럽에서 공부하던 우리 대구대교구 신부들이 모두 프랑스 루르드에 모여 당시 교구장 이문희 대주교님과 함께 연수회를 가졌었다. 오랜만에 유럽 각지에 흩어져 있던 교구 신부들이 교구장님을 모시고 한자리에 모여 친교를 나누는 감격과 기쁨의 시간들이었다. 연수회 중에 다 함께 야외에 설치된 14처(청동 조각품인 듯)를 따라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는 순서가 있었는데 이 십자가의 길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있다.

십자가의 길 제5처에서였다. 잘 아시다시피 제5처는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한다. 그런데 그곳 루르드 십자가의 길 제5처는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뒤쪽에서 십자가를 들어 올리는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었다. 십자가 무게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몸이 앞으로 쏠려 거의 넘어지실 판인데, 시몬은 돕는답시고 뒤에서 십자가를 들어 올리고 있으니, 예수님께 가해지는 무게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그 14처 작가는 왜 제5처를 그렇게 형상화해 놓았을까? 아마도 십자가, 즉 인간 구원을 위한 십자가란 오롯이 예수님의 몫일 뿐, 어느 누구와도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 실제로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 홀로 걸어가셨다. 스승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놓겠다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일치감치 도망을 쳤고, 극도의 비통함과 애달픔을 안고 뒤를 따르던 성모님과 요한 그리고 몇몇 여인들도 그분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질 수는 없었다. 그런데 영문도 모르는 과

객 시몬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맡길 수야 없지 않겠나, 잠깐이라도 말이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십자가의 무게만, 예수님의 고통만 더 커질 뿐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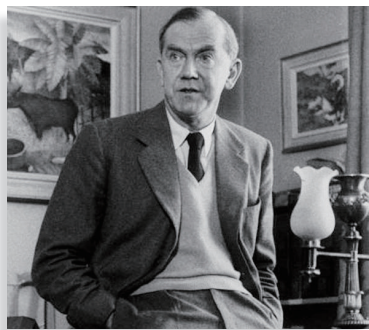
이렇듯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지셨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이름 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다. 오늘 십자가 현양 축일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룩한 위대한 업적을 기리며 십자가를 드높이 찬양하는 날이다. “나는 땅에서 들어 올리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일 것이다.”(요한 12:32)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구원하신 것이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써 구원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다. 주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너무 크고 무겁게 느껴질 때이다. 나의 십자가만 눈에 보일 뿐 주님의 십자가는 사라지고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어렵고 혼란스러워진다. 십자가를 혼자 지고 가려하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결코 혼자 질 수 없다. 혼자 지는 십자가는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가 아니다. 십자가는 원래 주님의 것이었기에 누구든 십자가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힘으로만 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바라보자.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신 주님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성실하게 지고 가리라 다짐하자. **필요**

가톨릭 문화 산책

권력과 영광

그레이엄 그린, 1940년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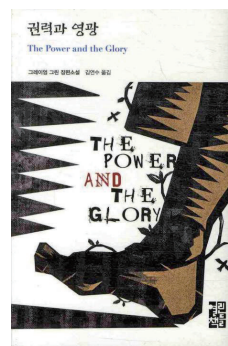
현대 영문 소설의 걸작을 꼽으면 반드시 들어가는 이 책의 원래 제목은 『The Power and The Glory』입니다. 미사 때 주님의 기도 끝에 바치는 작은 영광송,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작가 그레이엄 그린(1904-1991)은 『제3의 사나이』, 『사건의 핵심』과 같은 스릴러로 명성이 높지만, 그의 대표작인 이 소설은 신앙과 순교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멕시코는 국민 대다수가 천주교 신자인 나라지만 20세기 초반에는 정부가 천주교를 말살하려고 극심한 박해를 자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1917년 멕시코 정부는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 의회가 수도회를 해산하고 성직자를 추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설은 그 때의 멕시코를 배경으로 삼고 한 신부님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 이름을 밝히지 않고 별명인 ‘위스키 신부’로만 소개되는 신부님은 열심히 성실한 신부님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에다가 겁쟁이이고 스캔들까지 따라다니는 좀 신통치 않은 신부님입니다. 그

를 잡아서 처벌하려고 추적하는 경위 역시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이 경찰관은 반대로 윤리적으로 나무랄 데 없는 강직한 사람입니다. 위스키 신부는 주님께 기도하기를 “저보다 자격 있는 신부를 보내 주십사”고 청하지만, 결국 멕시코에는 이 알코올 중독 신부님 하나만 남게 됩니다. 위스키 신부는 스스로 신부 자격도 없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함정인 줄을 짐작하면서도 병자성사를 주려 가다가 결국 체포되어 총살당하고 맙니다.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나약하고 비굴하기까지 한 이 신부님이 어떻게 순교까지 하게 되었을까요? 소설 속 인물 본인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위해, 아이와 가정과 나라를 위해 죽기는 쉽다. 그러나 불성실하고 부패한 것을 위해 죽는 데는 하느님이 필요하다.” **필문**

그레이엄 그린,
『권력과 영광』, 김연수 역,
2010년, 열린책들.



이달의 성인

인술도 신앙의 길도 함께한 쌍둥이 형제

성 고스마와 다미아노 (303년, 축일 : 9월 26일)



의사들 중에는 고스마와 다미아노란 세례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 두 성인께서는 아라비아의 명문 집안에서 자란 쌍둥이 형제로 함께 의학을 공부하여 남다른 의술로 명의

라는 칭송을 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려서부터 신앙심이 돈독했던 두 성인께서는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어 사람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아왔습니다. 또한 성인들께서는 자신들을 찾아오는 환자의 병을 치료하면서 마음의 고통까지 어루만져주었습니다. 때로는 기도를 통해 치유 기적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형제 성인의 청렴한 생활과 겸손한 자세, 늘 하느님께 기도하며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하느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한 여인이 다미아노 성인을 찾아와 병을 치료 받고 고마움의 성의로 작은 선물을 주었는데 주는 이의 성의를 생각해서 다미아노 성인께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고스마 성인께서는 크게 노하여 죽고 나면 절대로 다미아노 성인과 한 무덤에 묻지 말라고 할 정도로 조건 없는 봉사에 대해 엄격함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303년 이탈리아 전역에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의 바람이 불었고 두 성인도 이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환자들은 물론 만나는 사람에게 늘 하느님 말씀을 전했던 터라 성인들은 즉시 체포되었고 온갖 형벌을 가하며 배교를 강요당했으나 굳은 신앙심으로 이를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바다에 던져졌으나 천사가 구하고, 불에 던져졌으나 실패하자, 십자가에 매달리고 돌과 화살에 맞는 고문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시다가 마침내 참수형으로 순교하셨습니다. 생전에 많은 이들에게 자선을 베풀었지만 영광스런 순교 후에도 성인들의 전구로 인한 치유의 기적이 곳곳에 일어나면서 더욱 더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훗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두 성인의 삶을 칭송하며 콘스탄티노플에 거대한 성당을 지어 봉헌하였으며 펠릭스 4세 교황님도 로마에 '성 고스마와 성 다미아노 성당'을 지어 많은 이들이 두 성인을 현양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6세기경에는 미사전례 중 성체거양 직전에 위대한 치명자들의 전달을 구하는 경문에 고스마와 다미아노 성인의 이름이 첨가되어 성인들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고스마와 다미아노 성인께서는 이발사의 수호성인이자 루카 성인 다음으로 의사들의 수호성인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아시나요? - 이름난 가톨릭 신자들

악마를 겁내지 말라

미국 100대 기업인 중 한 명이고 학교 법인, 호텔 체인, 백화점 프랜차이즈 등 수십 개의 계열 기업들을 거느린 사업가 티모시 부시(Timothy R. Busch)는 주일을 꼬박꼬박 지키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드러내지 않고 성당에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신자임을 밝히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천주교 신앙에 배치되는 상행위를 엄하게 금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부시가 경영하는 퍼시픽 호텔의 침대 머리맡에는 십자고상과 성경이 놓여 있고 비디오를 상영하지 않습니다. 손님들이 항의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20년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혼자 출장 나온 회사원이 여관에 묵는데, 갈 데도 없고 가족은 멀리 있고 방에 앉아서 술 먹고 영화 보는 일 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관방에서 심야에 틀어주는 케이블이 뭐겠습니까?” 부시는 중역 회의를 시작할 때 기도를 바칩니다. 이 역시 30년 가까이 실천하고 있는데 신자건 아니건 아

무도 싫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시는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드러내는 일이 의외로 반감을 사거나 공격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만물 가운데는 시장바닥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저 같은 장사꾼도 있죠. 하느님께서 주일 아침에 성당에서 뿐 아니라 만물을 통해 찬미를 받으셔야 합니다.” 신앙의 원칙을 지키려고 하다가 사업에 손해가 가는 경우는 없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돈은 벌기도 하고 때로 잃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은 나 자신입니다. 겁이 나고 불편하니까 자신을 감추고 웅크리는 것은 사는 게 아니죠. 그리고 마귀는 이미 졌습니다. 겁낼 필요 없어요.” **필문**



금주의 성인

9월 14일	성녀 노트부르가(하녀, 터롤, 1265~1313년), 성 마테르노(베드로의 제자, 주교, 켈른) 성 크레센시오(소년, 순교자, 로마, 300년)
9월 15일	성녀 가타리나(과부, 신비가, 제노바, 1447~1510년), 성 니코메데(신부, 순교자, 로마) 성 멜리티나(순교자, 마르키아노폴리스, 2세기), 성 레오비노(주교, 샤르트르, 558년경) 성 아이카르도(수도원장, 쥐미에주, 687년경)
9월 16일	성 고르넬리오(교황, 순교자, 253년), 성 아분단시오(부제, 순교자, 304년경) 성녀 에디타(공주, 수녀, 윌튼, 961~984년), 성녀 에우페미아(동정 순교자, 307년) 성 치프리아노(주교, 교부, 순교자, 카르타고, 200~258년)
9월 17일	성녀 골롬바(동정 순교자, 코르도바, 853년), 성 소크라테스(순교자) 성 람베르토(주교, 순교자, 마스트리흐트, 635~705년), 성녀 아리아드나(노예, 순교자, 130년) 성 로베르토 벨라르미노(추기경, 교회학자, 1542~1621년), 성 사티로(수사학자, 밀라노, 379년경) 성녀 힐데가르트(수녀원장, 신비가, 교회학자, 빙엔, 1098~1179년)
9월 18일	성녀 리카르다(황후, 895년경), 성 메토디오(주교, 순교자, 올림푸스, 310년경) 성녀 소피아(순교자, 200년경), 성 요셉(신부, 신비가, 쿠페르티노, 1603~1663년) 성녀 이레네(순교자, 200년경), 성 페레올로(호민관, 순교자, 비엔, 3세기)
9월 19일	성 야누아리오(주교, 순교자, 베네벤토, 305년경), 성 테오도로(주교, 캔터베리, 602~690년) 성녀 에밀리아(설립자, 로다트, 1787~1852년), 성녀 콘스탄시아(순교자, 1세기) 성녀 폼포사(동정 순교자, 835년)
9월 20일	성녀 파우스타(동정 순교자, 303년), 한국순교성인 103위

대구대교구 공식 스마트폰 앱 1.1 버전 안내!

교구 문화홍보실에서는 더욱 다양한 콘텐츠와 편의기능을 갖춘 교구 스마트폰 앱 1.1 버전을 배포합니다.



업데이트 내용

1) 메인 메뉴 3종 추가

- ① 월간빛 – 빛잡지 기사 월별 검색
- ② 기도문 – 가톨릭 기도서의 기도문과
특수지향 기도문 수록
- ③ 평화방송 – 실시간 대구평화방송 라디오
청취(Wi-Fi 환경에서 청취 권장)

2) 교구사제 검색에 서품년도별 검색 기능 추가

3) 푸시알림 수신 기능 추가

4)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기능 추가

5) 서비스 문의 및 버그 신고, E-Mail 발송 기능 추가



새주소 사용 2014년도 대구대교구 주소록 발간

교구 문화홍보실에서는 2014년도 대구대교구 주소록을 새롭게 발간합니다. 특히 이번에 발간하는 주소록은 도로명 새주소 사용에 맞추어 전면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제 인사이동 및 개편 등에 따른 최신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판매가 : 5,000원 | 620쪽

구입문의 : 교구 문화홍보실 053) 250-3047~9

사랑의 하느님 이시기에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2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9월 15일(월) 10:30 범어성당	성요셉 아버지학교 월례미사	9월 15일(월) 20:00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9월 15일(월) 11:00 계산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9월 18일(목) 10:00 평화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9월 15일(월) 11:00 월성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9월 20일(토) 10:00 월성성당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9월 15일(월) 11:00 죽도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9월 20일(토) 11:00 성모당
한티순교성지후원회 월례미사	9월 15일(월) 11:00 수상성당		

성소 | 피정

천주의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9.20(토) 14:00, 춘천시립복지원
대상: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사도직활동에 관심있는 청년 / www.johnofgod.or.kr
문의: (010)3800-1579

수원생빈센트병원자비익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9.21(일) 14:00, 수원 본원
문의: (010)8833-8107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한 ME주말

324차: 10.3(금)~5(일)
325차: 11.21(금)~23(일)
장소: 한티 / 문의: 대구ME, 983-0521
배우자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 영성 피정 (성체현사미사안수)

일시: 9.17(수) 13:00~16:00
10.15(수) 13:00~16:00
지도: 강요셉 신부
문의: 삼덕성당, 422-6691

내적여정 에니어그램 피정

기간: 10.10(금)~12(일) / 10.24(금)~25(토)
문의: 올리베타노 성베네딕도수도회
안젤로 수사, (010)3664-3986

성심교육관 2박 3일 무료 피정

기간: 9.19(금) 23:00~21(일) 15:00
출발: 시민회관 16:00(성심교육관)
주최: 파티마의성모프란치스코수녀회
문의: 이명자 카타리나, (010)4515-1114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피정)

기간: 10.3(금)~5(일) / 회비: 2만 원
장소: 부산 한국외방선교수녀회 본원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35세 미만), 문의: (010)9319-1690

교육 | 모집

오순절평화희마를 철야 기도회

시간: 매주 화 23:00~익일 4:00
버스운행: 현대미래몰 앞 20:30
수성구청 21:30
문의: 김명옥, (010)5529-3186

새빛학교 기초영어 한문반 모집

영어개강: 9.16(화) 13:00(주2회)
한문개강: 9.16(화) 15:00(주1회)
문의: 교무실, 476-3100(지하철 교대역)

자율형사립고 대건고 신입생 모집

설명회: 1차 9.20(토) 14:00, 대건고
2차 10.18(토) 14:00, 대건고

원서접수: 11.4(화)~7(금)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입학 문의: 638-9332

국가자격 무시험 장례지도사 교육생 모집

교육기간: 9.20(토)~12.14(일)
교육: 월·수·금 18:30~ / 일 14:00
모집: 야간 40명 (300시간)
자격: 학력, 남녀나이 무관 / 모든 신자
문의: 대가대 장례지도사교육원, 660-5557

대구가톨릭대 차이나포럼 20기 모집

개강: 9.22(월) 19:00(현재 접수중)
장소: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감삼동)
내용: 석식, 명사특강, MT, 중국현지학습 등
수업료(6개월 과정): 90만 원
문의: 김영택, (010)9494-8169

16차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신규교육 모집

기간: 9.25(목)~26(금), 4층 마리아홀
선착순: 30명 / 교육비: 3만 원
대구은행, 508-10-349316-9, 장혜자
문의: 940-7059, 7415(입금 후 전화)

제주도 관광 안내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제주기사사도회, (010)4566-6476

(주)약령시사람들
경육과 명가(3대째)
◎ 추석명절 선물용 경육고제품
◎ 공진단, 홍삼제품
교우님 특별할인 30%~50%
양대점(안토니오) 010-3528-8008
☎ (053)428-8002
www.약령시사람들.com (약전골목 내)

에이 통증의학과
비수술적 치료전문
· 목 / 허리 디스크 / 협착증
· 이명 / 어지럼증 / 두통
· 오심 / 어깨통증 · 무릎 관절통
통증의학전문/원장 이준석(이나시오)
- 대구가톨릭대병원 외래교수 -
TEL : (053)742-8275
범어네거리 / 지하철 2호선 범어역 1번 출구 앞

이 원 의 료 기
협합계 · 혈당계 · 휠체어 · 산소치료기
뜸 · 부항기 · 주열기 · 찜질기
체온계 · 욕창매트 · 환자용품 · 안마기
실버카 · 보호대 · 글루코사민 · 오메가3
변상범(도미니코), 김인숙(아나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053)256-2512(대표), 2513

성요셉요양병원
(구, 논공가톨릭병원)
매일미사, 상시고해 · 병자성사, 봉성체, 병실순회 기도
치매 · 중풍 · 노인질환 전문 클리닉 운영
24시간 전문간병인 · 의사 · 간호사 상주 진료
친환경적 병실 운영, 양 · 한방 협진
병원장 장 효 원(요셉) 신부
TEL 053)615-4871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무료암검진
위 · 대장내시경 · 용종절제술
한번에 편안하게!!
당뇨 · 고혈압 · 소화기 · 내시경 원장/전문의 김영섭(베드로)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

윤영희 성형외과
Dr. Yoon's Aesthetic Clinic
의학박사/전문의 윤 영 현(바오로)
서울백병원/영남대 외래교수
영남대학교병원 사거리 앞
T. 053)655-8686 / 8680

일본 성지 순례
이라도, 나가사키 (4월) / 오이타, 유우인 (4월)
※ 출발일 - 10월 22일, 29일
- 11월 12일, 26일
- 12월 03일, 17일
T. 053)253-3399
조 철 래(유키노조) 흥 미 회(안젤라)

KC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홈케어 무료서비스
무료전화 080-053-1000
아육수(아네스) 010-5048-7739

행사 | 모임

9월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9.21(일) 14:00
1~3대리구: 남산동 대신학원
4대리구: 성동성당, 죽도성당
5대리구: 5대리구청, 평화성당

대구평화방송 개국 18주년 기념음악회

일시: 10.17(금) 19:30, 수성아트피아
출연: 모스틀리 팔하모니 오케스트라
전영록, 소냐, 유엔젤보이스, 강혜정
예매: 티켓링크, www.dgpbco.kr
전화예매 / 문의: 251-2610, 전석 2만 원

전례꽃꽂이 연구회 총회

일시: 9.15(월) 14: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의실
강좌반 모집: 9.15(월)~10.31(금)
네이버: 대구대교구 전례꽃꽂이 연구회

교육 | 모집

2014년 가을 젊은이 성령 세미나

기간: 10.3(금)~5(일), 월막피정의 집
선착순: 청년 40명, 참가비: 8만 원
문의: (010)8678-2961

SNS 선교 활동단 모집

활동시간: 본인 원하는 시간 / 시급제
대상: 주일학교 교사 및 졸업자, 일반교리교사
활동내용: 천주교안내책자를 중심으로 선교
문의: 가두선교단, (070)8827-6100

성모 신심 세미나

일정: 10.1부터 7주간(매주 수) 14:00~17:00
장소: 꾸르실로 교육관
신청비: 3만 원 (교재비, 수강료 등)
주관: 파티마 세계 사도직(푸른군대)
접수: 세나투스, 256-3574 / (010)7173-1698

시편성가, 발성법 연수

일시: 9.14(일) 15:00
지도: 김정선 수녀, 박재연
회비: 1만 원 / 문의: 255-4847

지성인을 위한 토요 신앙 특강

일시: 9.20(토) 10:00~12:00
장소: 남산동 신학대 / 5천 원
주제: 성경과 신앙, 그 특수한 연계성
강사: 김혜운(베아트릭스) 수녀
문의: 평신도 신학교육원, 660-5105~6

16회 대학생 필리핀 해외봉사아학연수

3차: 9.20(토) 8, 12주
기타: 캐나다, 호주 연계연수 가능
해외봉사 인증서(학점인증 가능)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여성가족부인정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생 모집

기간: 9.23~12.16(매주 화, 8시간)
대상: 전문대졸업자 이상
문의: 대구가톨릭상담원교육센터,
253-1401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통기타, 플루트, 우쿨렐레(성인, 어린이)
바이올린, 오카리나, 초코아트, POP,
틀페인팅, 백세건강 / 문의: 476-6211

채용 | 안내

교구청 전산실 직원 채용(1명)

자격: 서버 및 네트워크 관련 경력자
서류: 이력서, 자필소개서, 학력증명서
교적사본, 본당신부님 추천서
마감: 9.17(수) 서류전형 후 면접
우편접수처: 교구 사무처, 문의: 250-3093

(주)매일상조 영업사원 채용

매일신문사에서 직접 운영하여
믿을 수 있는 매일상조에서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427-4400(면접 후 채용)

사회복지회, 생명, 사랑, 나눔 운동본부

각 본당에 설치된 생명사랑나눔운동본부
파란색 헌옷수거함에 옷가지를 넣어서
사랑을 전해주세요. 헌옷, 가전, 기타, 해
외난민지원사업 및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555-4846 / 253-9991

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백준현(안드레아), 배운주(소피아)
문의: 253-9550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 656-9911
010-2008-2329

30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 253-7476
방 프란체스코
중앙네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성가정 결혼
053)474-0025, 011-818-0818
가톨릭 문화관 2층
남대구 우체국 옆, 교대역 3번 출구
권중문(파비올라)

큰 사랑, 큰 믿음!
대구안과 이전 확장
DAEGU EYE CLINIC
백내장, 노안, 근시교정 수술
원장 이호성(아오싱), 조영수(다미아노)
대구시 남구 월배로 468(대명동)
(구)달성군청자리
☎ (053)651-2233

해아림한의원
소아클리닉 - 틱, ADHD, 아노
마음클리닉 - 공황, 불안, 불면
원장 김 대 역(안드레아)
예약 : 053)751-0071 2호선 수성구청역
4번출구 승원학원옆

Enterpack 식품포장기 전문 업체
반찬, 떡볶이, 찜, 탕, 국, 배달음식
냄새나는 음식, 자동 식품 포장기
진공 포장기, 비닐접착기, 식품용기, 식품비닐
전국대표전화 1544-9468
☎ 053)742-4488 이옥남(카타리나)
대일푸드팩시스템

행복한 재활·요양 병원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원목실 운영, 월례미사 봉헌
원목팀장 김 미 형(요세피나)
이 범 수(대전안드레아)
☎ 053)426-6000 (중구 보건소 옆)

사랑의 정령이여 영혼을 기르라
이조맛김
김·건어물·젓갈류 판매
성전건립기금 마련 및 바자회
성모회·자모회 등 각종 단체 기금모음
전 영 진(바오로) 010-4192-5655
이 경 숙(모니카) 010-4123-5353
053-255-3836